

꿈을 안고 왔다... 도시빈민 전략한 이주여성의 '광주 드림'

광주시 동구 다문화가정 161세대 생활실태 조사

중국인 여성 김영희(42·가명)씨는 지난 2002년 5월 10일 중국어 통역사로 일하며 남편과 격정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다. 김씨의 '코리아드림'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용어 등에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통역은 커피, 식당 일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남편도 직장을 잃어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김씨 가족 월평균 소득액은 고작 30만~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인 김씨는 한국에 온 이후 출근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김씨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10세대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배우자 중 4.4명은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전·월세방을 전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동구는 5일 지역 거주 다문화가정 161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2013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세대 중 70세대(43.5%)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154만6000원(4인 가족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인 185만5000원을 버는 세대도 29세대(18.0%)였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인 세대는 11세대(6.8%)에 불과했다.

70세대 이상 월소득 150만원 이하에 배우자 직업 없고 전·월세방에서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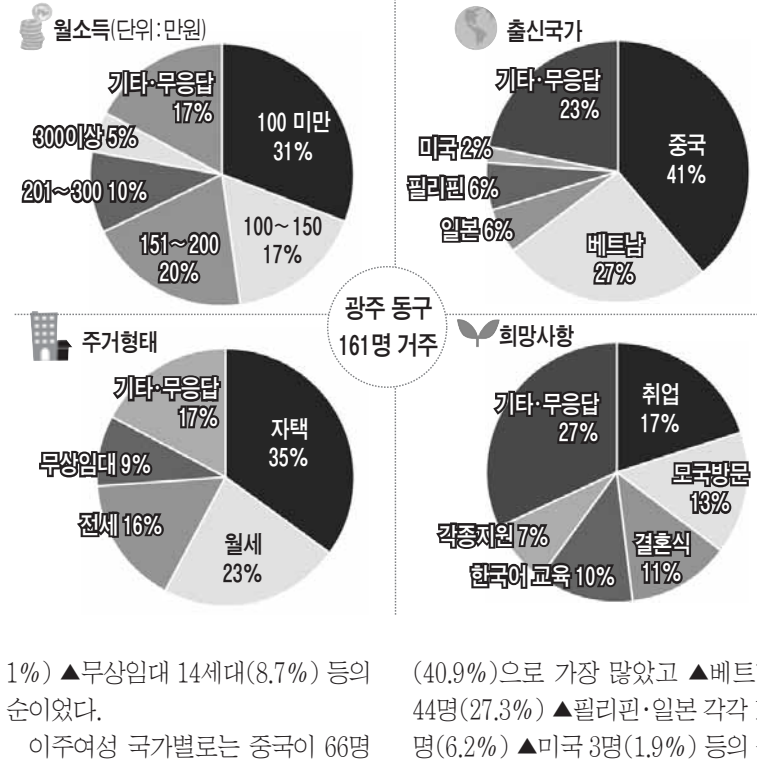
배우자 직업으로는 무직이 72명(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회사원 24명(14.9%) ▲일용직 21명(13.0%) ▲자영업 18명(11.2%) ▲운수업 10명(6.2%) ▲강사 6명(3.7%)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정은 주로 전·월세 또는 무상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자택이 57세대(3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월세 37세대(22.9%) ▲전세 26세대(16.1%) ▲무상임대 14세대(8.7%) 등의 순이었다.

이주여성 국가별로는 중국이 66명

■광주 동구 다문화 가족 생활 실태



이었다. 출신 국가별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중국·동남아와 달리 미국·영국·캐나다 등 6세대의 소득액은 250만원~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여성들이 꿈의 희망사항은 취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은 모두 28명(17.4%)이며, 이어 ▲모국방문 21명(13.0%) ▲결혼식 18명(11.2%) ▲한국어 교육 16명(9.9%) ▲경제·의료비 교육 지원 12명(7.5%) 등의 순이었다.

동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다문화가정 261세대 중 161세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동구는 이번 결과를 내린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축협조합장들 '甲의 횡포'

사료납품 대가 3년간 역대 해외여행비 받아

전남경찰, 18명 입건... 전남지역 축협 수사 확대

축산 사료 납품업체로부터 경비 지인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공짜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甲의 횡포'를 부린 전남 지역 축협조합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광주·전남 축협조합장의 모임인 축협운영협의회도 지난 2010년 터키·그리스·이집트 등을 돌아보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470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납품 업체로부터 해외 여행 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강모(62)씨 등 전남 지역 10개 축협조합장과 전남 지역 축협조합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납품 대가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사료첨가제 업체 대표 박모(56)씨, 돈을 받은 뒤 농협 사료에 사료 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농협중앙회 전 중문사업소장 권모(55)씨, 축협 조합장들에게 해외여행비 등을 준 혐의로 농협사료 전북지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각각 입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료 첨가제업체 대표와 농협사료 전북지사 영업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남 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9박10일·부부 동반), 하와이(4박6일), 일본 오키나와(3박 4일·부부 동반) 등을 여행하면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합계 1억 1400만원)를 농협사료 전북지사측에 부담시킨 혐의다.

농협 사료측은 지난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해외 여행 경비가 부족하자 농협사료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충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남 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전 중문사업소장과 농협사료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은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4800만원을 받거나 축협조합장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적십자사 회원들 세탁봉사. 대한적십자사 북구지회 회원들이 6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공4단지에서 세탁봉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속옷 벗겨 중요 부위에 물파스... 상습 성추행...

의경부대 가혹행위 보니 전남경찰, 3명 형사처벌

“상·하의를 벗긴다. 속옷도 벗긴다. 중요 부위에 물파스를 바른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의경 중대 소속 선임 의경이 선임병들에게 당한 성추행(광주일보 11월 5일자 6면)내용이다.

선임병들은 부대 적응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 의경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청에 따르면 A 의경은 지난 9월부터 지난해 24일까지 선임병들에 의해 취사반·내무반·골방 등으로 자주 불려가 '부대 적응이 느리다'는 이

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은 샤워실에서 A 의경에게 알몸 상태로 “이리와, 원위치”라는 구령에 따라 얼차려를 시키는가 하면, 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혹 행위도 일삼았다. 한 선임병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A 의경에게 만지게 하는 등 수 차례

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 등)로 B 상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2명의 선임병에 대해서도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 경찰이 부대 내 구타·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영창행', '인권교육'이 아닌,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목포 동사무소 압수수색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목포시 한 동주민센터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A 동장의 컴퓨터와 개인 차량,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목포시 회계과와 보건소 등에서 A 동장이 근무할 당시 계약서류 등을 제출 받았다.

이 공무원이 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누가 왜 딸기 묘목에 제초제 뿌렸나

○...자신의 딸기 하우스에 심어진 딸기 묘목에 누군가 제초제를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6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유모(45)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에 장성군 진원면 자신의 딸기하우스(6600㎡)에서 330㎡ 면적의 딸기 묘목이 시들어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제초제 살포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제초제 살포 및 냉해 등 이상 기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일 방침.

/정성=김홍호기자 yongho@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시 2차	정 시
인 문	신 학 과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 회	사회복지상담학과	7	5	
	유 아 교 육 과	7	3	
예 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4	5	
	실 용 음 악 학 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콘텐츠, 싱어송라이터 등)	-	5	
총 계		31	3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2차모집: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 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 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통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성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자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www.kwangshin.ac.kr

hello tv 사은대축제

hello 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제안

- 디지털tv: 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 인터넷: 국내 최고 기가넷 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방송 월 10,500원 (VAT 포함 11,500원)
- 전화: 전용번호 그대로, 요금은 절반! 달달한 장인료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2 hello tv 미니팩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 격
골프(스모스족)	골프준거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BS ADVENTURE, Discovery	~3,000원 ~ 2,000원 (VAT 포함 2,0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S	~3,000원 ~ 2,000원 (VAT 포함 2,000원)
카드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카드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 2,000원 (VAT 포함 2,0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te	~3,000원 ~ 2,000원 (VAT 포함 2,000원)

가입문의 1588-3450